■ D램 구조개편 이어 도시바·NEC '시스템 반도체' 통합 예고

한·일·대만 반도체전쟁 '2라운드'

日·대만 통합진영 공격 경영 예고
韓,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 시급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반도체 시대'를 이끄는 일본과 대만이 대대적인 기업 합병을 통한 산업 구조개편을 잇따라 마무리했다. 두 나라의 통합 반도체 업체들은 앞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최정훈·안수민기자 jhchoi@et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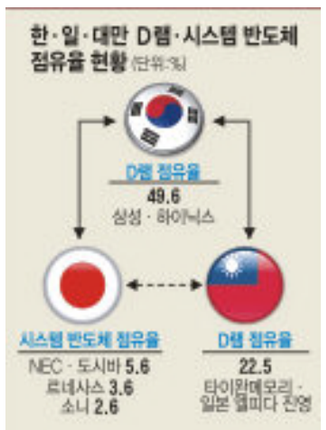
◇한·일·대만의 구조 재편=8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 3위 도시바와 11위 NEC가 내년 1월 목표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동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구조조정이 막바지로 치달았다.

두 회사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통합하면 연매출 약 1조3000억엔(약 17조3000억원) 규모다. 2003년 4월 히타치와 미쓰비시가 사업을 통합한 세계 6위 시스템 반도체 업체 르네사스의 연매출 약 9500억엔(약 12조64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최대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2위인 TI를 바짝 뒤쫓는다.

양사는 세계시장 불황 여파로 시스템LSI 사업이 침체에 빠지자 작년 3분기부터 사업 통합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시바와 NEC는 반도체 사업에서 각각 2900억엔과 650억엔의 영업적자를 예상, 사업 통합의 당위성을 한층 높였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 통합은 도시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분사해 NEC와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NEC는 후지쯔일렉트로닉스와도 통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 도시바-NEC-후지쯔의 3자 간 시스템 반도체 통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본 반도체 업계는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을 쥐었으나 한국·대만 등의 급성장으로 고전하면서 NEC와 히타치가 1999년 메모리사업을 통합한 엘피다를 세우는 등 고비 때마다 펼친 반도체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번에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정부도 최근 설립한 대만 '타이완 메모리'를 정점으로 파워칩·프로모스·윈본드·렉스칩의 대만 4개사를 합칠 계획이다. 특히 대만 정부는 D램 시장 세계 3위인 일본 엘피다와 손잡고 고부가가치인 모바일 D램 시장 개척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파악됐다.

◇시스템 반도체 열세 극복이 관건=대만 반도체 기업의 통합은 생산량 감축으로 D램 가격 안정화를 불러와 삼성·하이닉스에 긍정적이다. 삼성·하이닉스가 미세공정 기술력·원가 경쟁력·시장 지배력의 삼박자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보다 우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NEC와 도시바의 시스템 반도체 통합은 사정이 다르다.

삼성·하이닉스는 일본에 비해 크게 열세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14위를 기록했다. 하이닉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시스템 반도체 기술은 대만에도 뒤지는 편이다.

정부와 국내 업체들이 미래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커진 일본 업체들을 상대하기 더 힘들어졌다. 일부 분야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자원을 집중하기 힘든 유망 분야를 잘 골라 역량을 쏟아붓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은 "NEC·도시바는 내수 의존도가 높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특성상 시장이 안정적이고 고부가가치를 띤만큼 정부와 기업이 휴대폰·디지털TV·자동차 등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과학관에 가면 '우주인 배출 1주년 기획전' 8일 우주인 배출 1주년을 맞아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우주인 배출 1주년 특별기획전'을 찾은 학생들이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에서 진행한 실험물과 기기·실험사진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 이소연 박사는 14일과 21일 전시관을 찾아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직접 설명하고 23일에는 초청 강연에서 청소년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

■ '창조경제' 석학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교수

"1인 창조기업은 혁신 아이디어"

경제위기 극복 해법으로
개인 창조성 극대화 꼽아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1인 창조기업은 개개인의 창조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경제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입니다."

창조성과 창조적 경제 분야를 천착해 온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학 교수는 8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나 정책과 연계하려는 한국의 '창조경제' 구상이 "사람들의 창조성을 장려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플로리다 교수는 "오늘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창조성"이라며, "개인이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길을 여는 것이 우리 시대 최고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사상 처음으로 창조성이 경제 성장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은 시대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인간의 창조성은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왔지만 최근 더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본·토지·노동 등 전통적 요소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창조성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창조성을 활용하고 육성하는 시스템과 환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 교수는 창조적 계급을 '지식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돈을 벌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니며 일하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과학자와 기술자, 연구원, 작가, 음악인 등을 '창조적 핵심'으로, 경영·재무·의료·법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창조적 전문가'로 분류했다. 이들 창조적 계급은 현재 세계적으로 1억5000만명에 이르며 그 경제적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례없는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할 힘도 개개인의 창조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플로리다 교수는 "창조적 경제의 성장을 위해 창조적 계급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 분위기, 지역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 정부에 "과학기술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어디서나 배운다는 개념을 근간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창조적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재, 기술, 관용을 경제 개발의 '3T(Talent, Technology, Tolerance)'라고 부른다. 이동성이 전례 없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기술 혁신과 관용을 장려하는 사회로 거듭나지 못하면 창조적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들도 창조경제 시대에 맞춰 직원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환경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 글로벌화 '허울뿐'

해외 주재관 2명뿐…방통위 국제협력 조직도 2개과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 담당 해외주재관이 단 두 명(두 곳)에 불과해 방송통신의 글로벌화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소속기관 직제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 파견한 방송통신분야 주재관(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국제기구를 상대하는 주재관을 뺀 순수한 해당국가 담당 주재관은 미국과 중국에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전략적 거점은 물론이고 영국·일본 등 주요 벤치마킹 국가이자 주요 시장조차도 방송통신 주재관이 없다. '글로벌 미디어기업 발굴' 등을 내세우는 글로벌 방송통신 전략은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의 글로벌화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해외주재관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옛 정통부)가 그 특성상 해외 주재관을 둘 필요가 없던 방송위를 통합하면서 조직적인 글로벌 전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방송과 통신의 진흥업무를 총괄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전략이 주요 업무로 부상했음에도 해외 조직은 통합 이전인 정통부 시절에 비해 더욱 축소돼 심각성을 더했다. 방통위 내부의 국제협력 조직도 정통부와 방송위 시절 각각 4개와 1개 과 등 5개과에서 현재 2개과로 줄어든 상태다.

업계는 "방송통신 관련 아이템의 수출은 기업들의 기술력 및 전략 이상으로 해외 정보력과 외교력이 중요한 변수"라며 "그러나 전략적인 국가조차 방송통신에 정통한 국가 주재관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와이브로와 IPTV 등을 중심으로 차세대 방송통신분야의 해외 시장이 열리고 한국 서비스 및 장비산업에 대한 통신후발국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현지 창구가 없다. 중국 등 후발국의 공세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지식경제부와 함께
"미래기술리더"로 도약하세요!

미래기술리더! 이공계 졸업자를 위한
2009년 "국제적합성평가 전문인력양성사업" 연수생 모집

■ 사업개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의 8개 적합성평가기관(국제공인시험연구원)에서는 국제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취업 이공계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실무형 직무교육과 체험연수를 실시합니다. 본 과정 수료자는 산업계, 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등의 시험인증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 국제적합성평가 전문인력교육과정 수료증
▶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및 연수수당(월40만원) 지급
▶ 국제공인(KOLAS)평가사 교육수료증 발급
▶ 현장실습기관, KOLAS기관 연계 취업 적극지원

■ 교육내용

분야		기간	교육내용	참여기관
공통교육	소양교육 기술교육 적합성이론, 실습	2개월	▶ 기본소양, 정보전산 교육 ▶ 기술경영(MOT), 실험통계학 ▶ 적합성평가, 표준화, 국제인증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FITI시험연구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한국전자파연구원
참여기관 전문연수		2개월	▶ 전문분야별 직무교육 ▶ 참여기관에서 현장실습	

■ 교육기간 및 공통지원자격

교육기간 및 모집인원	■ 1차 : 2009년 5월 ~ 08월 (4개월), 60명 ■ 2차 : 2009년 8월 ~ 11월 (4개월), 60명 (2차 연수생 모집은 금년 7월중 공고함)
지원자격	■ 이공계 졸업(석, 박사 포함) 미취업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참여기관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참여기관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별도 확인) ■ 제외 : 국비지원 연수사업에 1회이상 참여한 자
원서접수	■ 신청방법 : 전문연수를 희망하는 참여기관의 문의처를 통하여 지원 ■ 모집기간 : 2009. 4. 9.(목) ~ 4. 17.(금) ※참여기관별 모집기간, 자격요건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전문연수(현장실습)를 희망하는 참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광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총괄문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영기획실 김지훈 (02)2164-0034, hr@ktr.or.kr)

■ 2009년 국제적합성평가 전문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전문연수기관)

지역	참여기관	담당자	문의처	
서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김지훈	02)2164-0034	www.ktr.or.kr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김명훈	02)3415-8752	www.kicm.kr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정석원	02)2102-2612	www.kemti.org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임철빈	02)3668-3015	www.katri.re.kr
	FITI시험연구원	박광재	02)3299-8113	www.fiti.re.kr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김광수	02)2056-4714	www.mpi.or.kr
경기 군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조준래	031)428-7535	www.ketl.or.kr
용인	한국전자파연구원	이근형	031)679-9557	www.erl.re.kr

※ 지원자격 및 원서접수는 희망하는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광고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KE 지식경제부 ■ 참여기관 : KTR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ICM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KEMTI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ERI 한국전자파연구원